

2020 **꿈** 을 쓰다 <2> 시인 오성인

# “시를 쓰는 건 시대의 폭력과 맞서는 일”

오성인 시인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태생적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광주 출신의 그는 올해 나이가 서른셋이다. 80년 5·18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태생적 죄책감’이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시가 ‘역사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된다. 5·18 이후 세대로서 ‘관습’과 ‘소재주의 함몰’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왜 가까이 5·18을 대면하고 있는지를.

“1980년 5월 당시, 부친은 경기도 고양에서 군 복무(수송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부에서 부대 앞 야산의 나무를 벌목해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선·후임, 동기들과 작업에 참여했어요. 그렇게 나무를 실어와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근봉 형태로 깎고, 다듬고, 옷칠을 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근봉이 계엄군의 진압봉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대 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지요.”

오성인 시인에게 5월의 비극이 현재진행형인 까닭이다. 일상의 삶과 역사적 삶을 바라보는 그의 의식은 명징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다. 그의 시가 지닌 장점은 2013년 계간 ‘시인수첩’ 신인상으로 등단한 그는 2018년 대산문화재단 대산창작기금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시집 ‘푸른 눈의 목격자’로 제2회 나주문학상을 수상하며 ‘오성인’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다.

첫인상의 그에게선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이 감돈다. 역동적인 서사나 이야기를 쓰는 소설가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비극적 세계를 인식하는 여러 시인의 감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먼저 첫 시집 ‘푸른 눈의 목격자’로 지난해 나주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사실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나주에서 시를 파종하고 가꿔낼 수 있는 가능성을 눈여겨봐준 분들에게 감사하 드린다”면서도 “가진 것이라고는 시가 전부인 아들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시는 부모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났다”고 말했다.

복잡다단하고 자본주의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시를 쓰는 아들을 둔 부모님 심정은 어떨까. 오늘의 시대는 시인의 아들을 둔 부모님 또한 시인의 감성으로 살지 않고는 오히려 세상을 견뎌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시집 ‘푸른 눈의...’ 나주 문학상 수상 사회모순·비극 역사 중심엔 ‘광주’ 있어 인류·광주정신 주제 두번째 작품 준비



오성인 시인

화제를 작품집 ‘푸른 눈의 목격자’로 돌렸다. 이번 시집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비극적 현상을 특유의 정치하면서도 불기어린 목소리로 풀어냈다. 그러한 비극성과 이를 주시하는 역사성의 중심에는 ‘광주’가 놓여 있다.

“광주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보낸 까닭도 있습니다만, 모든 문화와 자본이 중앙으로 편중된 작금의 시류가 탐탁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굳이 중앙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에 기반한 고유의 소재들을 심분 활용해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문학적으로 소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광주의 진실을 ‘거대한 화두’로 빚었다. 시인의 뇌리에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 일대의 풍경이 각인돼 있다. 40년 전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인

장본인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다. 광주에 온 전두환 씨는 “왜 이래”라는 한마디를 내뱉고는 공권력의 경호를 받으며 광주를 빠져나갔던 것이다.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와 진정어린 사죄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길을 봉쇄하려는 이들이 뒤엎겨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시도 위로가 되기는 벅찼어요.”

시인으로서 ‘역사적 현장’에 있고 싶어 그곳에 갔다는 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빈속에 소주를 마셨다고 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허물처럼 무기력함이 오랫동안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이다.

그는 “시를 쓰는 일은 거듭되는 시대의 폭력과 맞서는 일이자 시대를 향한 울분과 연대하는 일”이라며 “어쩌면 내 평생의 사명 내지는 혁명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인은 어렵지만 기꺼이 시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부터 시를 쓰게 됐을까.

“중학교 2학년 때 국어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시를 쓰게 됐어요. 글쓰기 과제로 시를 제출했다가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죠. 난생 처음 칭찬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 열심히 글쓰기에 매진했습니다.”

시를 쓰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기존의 존재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시대와의 호흡도 중요하다. 그는 “한 시대가 저물고 시대를 주도했던 한 세대가 물러날 때 제 시가 진혼곡으로 읽히며 또 다른 진혼곡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폴란드 시인이자 번역가인 비스와바 실보르스카를 좋아한다는 오성인 시인. 아마도 일생동안 역사와 문학을 성찰했던 실보르스카처럼 그 또한 미려하나마 문학과 역사에 대한 명징한 인식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올해는 두 번째 시집에 실을 작품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첫 시집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면 두 번째 시집부터는 세부 디테일에 집중될 예정이죠. ‘인류는 왜, 어찌서 끊임없이 비탄에 빠지는가’, ‘광주정신은 어떻게 광주를 초월해야 하는가’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행보 작 ‘孤帆’

## ‘강산을 훑쳐보고 시를 건지다’

박행보 화백 시집출간 기념전, 19일까지 금봉미술관

“온 가족이 오손도손 단란한/밥상이 그림다// 하지만/마음 편한 친구는/안주 없는 술안주// 호를 쓸쓸히 앉아/외롭지 않는 밥상은/왼손이 건네주고 오른손이 받아 마시는 술잔// 아내가 외출이 잦았으면 하고 웃음짓는 밥상”

박행보 화백의 시 ‘갑주’ (甘酒)에 한상은 작가의 글씨와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은 시 읽는 맛과 그림 보는 맛을 함께 전해준다.

금봉 박행보 화백이 한시와 한글시를 모은 시집 ‘강산을 훑쳐보고 시를 건지다’를 펴냈다. 책에는 ‘계곡’, ‘길 없는 길’, ‘어머니’, ‘인생은 마라톤인가?’, ‘발하를 유성같이 세월은 흐른다’ 등 한글시와 ‘오월항쟁’, ‘설경’ 등 한시를 포함 모두 100여편의 시가 실렸다.

북과 화선지 대신 ‘언어’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번 시집에서는 노화백의 눈에 비친 자연의 모습과 그의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일상, 나이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책에는 손광은·임원식 시인의 축시와 자신의 예술 세계를 돌아본 ‘나의 인생 나의 예술-천진(天真)의 화풍을 찾아’도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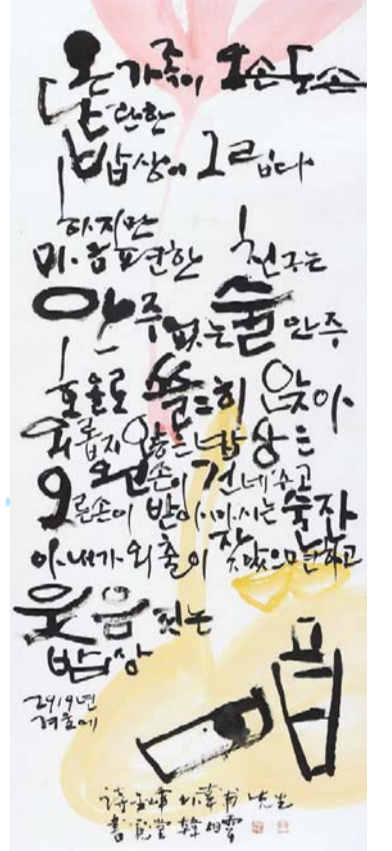
시집 발간에 맞춰 그의 작품에 지역 작가들이 글과 그림을 그린 전시회가 열린다. 금봉미술관(한상운 관장)은 신년기획

전으로 박행보 화백 시집출간 기념전 ‘강산을 훑쳐보고 시를 건지다’를 오는 1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인화가와 서예가들이 시집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박 화백의 시 한편씩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에는 강종원·김국상·김영삼·김재일·박상임·박종석·박태후·오명섭·이상태·이준형·이흥홍·임춘식·장찬홍·전명옥·정재경 등 27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박화백도 그림을 출품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상운 작 ‘甘酒’



임선영 작 ‘향기’

## 경자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진한미술관 16일까지 신년특별전

경자년 새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2020 진한미술관(관장 김상덕) 신년특별기획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이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이번이 3회째를 맞는 전시회에는 수채화, 서양화, 한국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45명이 개성 넘치는 작품을 내놓았다.

고현주 작가는 은은한 번짐의 수채화 매력에 느낄 수

있는 ‘수줍음’을 출품했으며 김은미 작가는 생동하는 자연의 모습을 화려한 색감으로 풀어낸 ‘축제, 제주 물들다’를 선보인다.

양준호 작가는 변화무쌍한 산세의 웅장함이 돋보이는 유화 작품 ‘금강산 만물상’을, 이근표 작가는 앙상한 나무 가지가 인상적인 ‘나무’를 전시하고 있다. 조각 작품으로는 정윤태 작가의 ‘기도’, 정동으로 반려견과 함께한 모습을 표현한 김금란 작가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가 눈에 띄며 최희원 작가의 ‘어

거스트 로망의 초상’도 인상적이다.

그밖에 김성수·김영란·문명호·위재환·유태환·정운태·이준재·정성복·주미희 작가 등이 참여했다.

김상덕 관장은 “매년 미술관이 열고 있는 나눔전에 창조적인 예술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작은 온정들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시무식” 및 “각종 연회 행사”는

#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시무식”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